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佛畵)중 '사경화'를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 -

- 평서민 남녀 복식을 주로하여 -

동덕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학과

교수 임명미

目	次
I. 서론	1. 고찰대상 작품 해설
1. 연구의 목적	2. 고찰대상 작품을 통해서 본 복식
2. 연구내용 및 범위	III. 결론
3. 연구방법	IV. 요약
II. 본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려왕조 500년의 복식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복식관련 자료가 미비한 고려왕조 대 복식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고려왕조 500년의 복식 전반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부분 연구로,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물을 통해서, 복식에 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그중 2번째 연구(2)-②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불화를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2)-②-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사경화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이다.

- (1)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청동경을 중심으로(1)
 - (2)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를 중심으로(2)
 - ①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탕화를 중심으로(2)-①
 - ②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사경화를 중심으로-(2)-②
 - ③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중 경관화를 중심으로-(2)-③
 - (3)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도자기를 중심으로(3)
 - (4) 고려시대 각인 및 제작 금동 및 청동인물상을 중심으로(4)
 - (5) 고려시대 석각 및 석조 인물상을 중심으로(5)
 - (6) 고려시대 인물화 및 출토고분 벽화 인물상을 중심으로(6)
- 연구는 I. 서론에서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내용, 연구방법을 밝히고, II. 본론에서 1) 고찰대상 사경화에 관한 작품해설, 2) 고찰대상 사경화속에 등장하는 남녀복식을 고찰하되 평서민을 주로하여 고찰한다.

* 본 연구는 1993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3. 연구방법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고려시대 제작 67점의 묘법 연화경, 28점의 대방광불 화엄경, 기타 18점, 총 110점의 사경 변상화를 중심으로 사경화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착용복식을 남녀 평서민부터 왕실귀족 및 승, 음무장의 복식을 머리서부터 족의 까지 고찰하되(특히 평서민 남녀에 초점을 맞추어) 남녀 귀족등의 복식은 고려를 전후한 주변제국 문헌기록 및 전세 회도상의 복식과 비교 고찰한다.

II. 본 론

1. 고찰대상 사경화의 작품해설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경전제작은 직접 필사하는 사경으로 이루어 졌고, 사경의 경서에 경전의 내용을 도해한 사경화를 ‘변상’¹⁾이라고 부른다. 고려때는 사경원-후에 금자원(金宇院)으로 바뀜-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금은자의 사경이 제작되었고, 이 사경의 머리 또는 중간에 변상도를 그렸다.

고려 사경²⁾은 공덕경의 성격이 강조되어, 사경 변상화는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변모하여 불화는 불상과 더불어 예불의 대상이 되지만, 사경은 사경하는 것이나, 사경 보는 것이나, 전독하는 것이 충분히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보았으므로 불화가 예불의 대상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지녀 대개 금은니의 선묘로 나타냈다.

본 연구는 주로 불교의 2대 경전중의 하나인 ‘묘법연화경’을 주로하여 고찰되었으므로 ‘묘법연화경’의 작품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묘법연화경 7권본 한절

태정 2년, 충숙왕 12년(1325) 작품으로 일본 소빈우하사 소장품이다.

① 변상화는 1권의 경우 향우에 석가여래의 설법도가 그려져 있다. 석가여래가 불단을 앞에 두고 앉아있고, 그 주변에 보살과 비구들이 둘러앉아 설법을 듣고 있다. 향좌의 상단에는 연유품의 ‘화택’이 그려져 있다. 대문앞에 장자가 그려지고 장자뒤로 대백우거와 그 아래로부터 복거, 양거, 우거 등이 그려지고, 화택의 아랫쪽에 장자가 아이들을 불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② 권 3의 변상화는 향우에 설법도가 그려져있고, <화성>의 솟을문 앞에 맹수가 그려져있다. 대좌위에 높이 앉은 여래앞에 비구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아랫쪽으로는 초가집을 그려 향우에 농사를 짓는 농부를 그림으로 나타냈고, 지정 2년(1350) 미륵하생경 변상의 양식과 같아 ‘미륵하생경’이 바로 이 양식을 따름을 알 수 있다.

③ 권 제4의 변상화에는 다른 <묘법연화경>의 양식과 달리 향우에 비운을 타고 내려오는 7보탑을 그리고, 그 탑의 맨 아랫층 탑신속에 석가, 다보 2불이 병좌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운데 하단에는 보탑 전체를 그리고 있는데 이 탑속에도 역시 다보와석가 두여래가 병좌해 있다.

④ 권 제5의 변상화에는 권 제4의 모티브와 같이 보운위에 7보탑을 그리고 있는데 탑을 그린 양식은 권 제3의 것과 다르다.

향좌에는 사바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분별공덕품>중에 진리와 구원의 생명을 봉헌하며, 현실에서 그 실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자의 공덕을 찬미하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1) 변상중에는 탑이나 단독 신상이 그려진 것도 있고(신상만 그린 경우 신상 그 자체가 경전과 경전에 관계된 사람들의 수호신으로 그려진 것이다.) 경경묘사로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있다(권회경(1986), 앞책, p.215)

2) 지금까지 대개 고려사경은 100건이 알려지고, 60여건이 국내에 있고, 일본에는 43건 가량이 있고, 그 중 일본에 있는 25건에 사경화(묘법연화변상도 12,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 6건, 기타 7건)가 있고, 주로 13~14C 작품이다.

⑤ 권 제6의 변상화에는 향우에 석가설법도를 그리고 있는데, 방광이 동방 18000세계를 비춘다는 것으로, 그 속에 집들을 그리고 있다.

방광 아랫쪽에는 말세의 무수한 박해를 받아가며, 보살행을 계속하면서 불이 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간의 선성을 신뢰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⑥ 권 제7의 변상화는 향우에 석가설법도를 그리고, 건물의 양식은 권 제2의 변상과 같다.

설법도의 난가뒤로 화염에 쌓인 보탑이 그려져 있고, 그 보탑의 향우로 보살이 그려져 있고, 보탑의 향좌로 사바세계의 석가행적이 그려져 있다.

2) 묘법연화경 8권본 한질

충숙왕후 원년(1332) 일본 좌가현립 박물관 기탁품, 현철, 법혜 두 승려와 오계유에 의한 발원된 것이다.

① 권 제1의 변상화는 화면이 거의 상하 2층의 구도이다. 하부에는 석가여래를 높은 연화좌 위에 앉히고 그 주위에 석가의 권속인 10대 제자와 보살과 제신상을 그리고 있으며, 하부에는 여래군과 보살군, 여래군과 보살군사이에 신상이 그려져 있다.

② 권 제2의 변상인 보탑은 10층 보탑을 그리고 있는데 제2층 탑신에다 다보, 석가, 2불을 병좌시키고 있다. 이들 2불은 연화좌 위에 앉아있다. 권 제3의 탑신속에도 다보, 석가를 병좌시키고 있다. 권 제4, 5, 6의 탑신에는 연화문양, 제7, 9층의 탑신 한가운데에는 '만자'가 쓰여있다.

③ 권 제3의 변상은 10층 탑이 그려져 있다. 3층 탑신속에 여래를 그리고, 탑의 뒷쪽으로 초층의 위로 올라오는 크기로 입상의 나한이 그려져 있다. 제3층의 탑신에는 만자 문양, 4, 5층 탑신에는 범자가 8층 탑신에는 만자문양, 9층 탑신에는 범자, 10층에는 만자 한자만 쓰여있다.

④ 권 제4의 변상은 9층 보탑으로 난간이 있는 기단에 2구의 보살입상을 배치하고, 조금 위쪽의 탑신부의 초층에 연화대 위에 여래를 그려 석가 3

존을 그렸다.

⑤ 권 제5의 변상은 12보탑을 그리고 있는데, 초층의 탑신 속에 여래를 그리고, 기단위에 협시를 그리고 있다.

⑥ 권 제6의 변상은 15층 보탑을 그리고 있다. 초층탑신에는 여래 탑신 밖에는 협시보살과 석가 3존을 그리고 있다.

⑦ 제7의 변상에는 9층보탑을 그리고, 탑의 상단양쪽에 비천상이 그려져 있다.

2. 고찰대상 작품을 통해서 본 복식

현존하는 고려 사경화는 총 100여점으로 60여건이 국내에 있고, 43건이 일본에 있으며, 그중 25건의 사경화(법화경 12, 화엄경 6건, 기타 7건)에 변상화가 있다. 그중 취득 가능한 범위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총 110 여점의 사경화를 중심으로 사경화 속에 등장하는 제불, 보살, 제왕, 신장, 귀족, 사자, 성중, 스님, 동자(선재, 편우, 선지, 주악, 주선) 및 등장 제 왕실 귀족 남녀, 백관, 제 평서민 남녀노소등의 착용복식이 사경화 제작당시의 시대 특성적 복식의 반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들 인물들의 복식을 중심으로, 이들 불화가 제작되었던 당시의 고려복식을 고찰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본 고찰대상에 포함된 사경화는 대승불교의 2대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중심으로 목종 10년(1006)부터 공양왕 원년(1389)까지 384년간, 거의 고려왕조 400여년간 사이의 작품들이나 본 연구(2)-②에 포함된 화엄경 변상 사경화는, 연구(2)-③에서 고찰하게 될 화엄경변상 경관화와 구도는 같은데, 사경화 이므로 보다 섬세, 정밀하게 인물의 착용복식 등이 묘사되 점이 있으나 연구(2)-③에서 경관화를 통해서 고찰하게 될 복식이 주로 주본(周本), 80본 화엄경의 변상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2)-②에서 고찰대상 인물의 착용 복식은 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화경 서탑이 제작된 고종 36년 이후, 원과

교류당시에 제작된 법화경을 통해서 본 고려 복식을 중점적으로 다룬 13~14C의 복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2)-①에서 본 탕화속의 왕실귀족의 제도복식 고찰과 달리 주로 평서민의 복식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본 고찰대상 변상화 속에 포함된 <대방광불 화엄경 권 제71, 72, 73 및 보현행원품>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 '중국 장안 종남산 만수산 주지³⁾인 광명선사 혜월에 의해 제작된 것'이며, '원의 작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들 변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원대 중국의 남방 특성적 중국복식을 착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역시 이와같은 관점에서 이들 사경화를 본다면, 본 연구의 고찰대상인 고려 사경화들이,

- ① 얼마나 '고려적'인 특성을 지녔는가
- ② 얼마나 '오대 중국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 ③ 얼마나 '북송적'인 것과의 관련이 있는 것인가
- ④ 얼마나 '요, 금대 중국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 ⑤ 얼마나 '남송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 ⑥ 얼마나 '원대 중국 특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대, 오대, 북송, 요, 금, 남송, 원, 명대의 사경화나 기타 현존하는 인근 제국의 관련 불화와의 비교 연구속에서 미술사학 혹은 복식사학적 관점에서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전제하에 현존하는 고려 사경화중 110여점을 고찰대상으로 살펴본 복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자복식

(1) 발양 및 관모

가) 머리는 대개 계(髻)를 만들어 상투를 노출시키거나 관, 건, 모를 착용하고 등자의 경우 1, 2, 3 층각을 만들어 대(帶)로 묶어 주었다.

나) 관직자의 관모로는

- ㉓ 조복용 : (원유관, 진현관, 관양)류의 관모를 착용하였다.
- ㉔ 공(상)복용 : 복두(전각, 하각, 상향각)와 원형의 평판모정(平板帽頂)에 어사화를 꽂은(?) 듯한 관모등이 있었다.
- ㉕ 평상복용 : 원정 내관(內冠)에 산자형 외관(山字型外冠) 관모, 복건류의 건모를 착용하였다. 그 외에 계를 싸매주는 건모 등이 있었다. 또, 첨이 넓은 삿갓류를 착용하였다.
- ㉖ 용, 무장복용 : 투구에 수미식, 조우삼식을 하였다. 또 금·원대 사방모(四方帽), 삼각모정(三角帽頂)에 수미, 조우 삼식한 무관(武冠)을 착용하였다.

(2) 복식

① 면류관류 착용의 제복제(祭服制)는 고찰대상 사경화를 통해서도 고찰할 수가 없었다.

② 조복 : 조복의 구성은 송사에 보면⁴⁾ 통천관(원유관), 진현관, 원정 보주관, 해치관, 농관등의 관모에 교령의 강사포(흑색, 명, 수, 거)에 강사군, 내의로 백색 중단, 대대, 혁대, 옥검, 폐옥, 방심곡령, 금옥대, 홍색 폐슬, 후수, 백말, 흑리이다. 요사에 보면⁵⁾ 황제 조복은 통천관에 강사포, 황태자는 3량 원유관에 강사포 제이고, 송은⁶⁾, 황제, 황태자가 통천관, 원유관에 강사포, 백관이 진현관, 해치관, 농관 등의 관모에 강사의군, 금은⁷⁾, 황제가 자황포, 태자가 자포, 원은⁸⁾ 4량관이 청의 흉상, 5량관이 갈색 대수외에 흉상, 3량관이 청의

3) 권회경, 고려 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p.277

4) 송사, 권56, 지제, 106, 여복 5

5) 요사, 권56, 지제, 25, 외위지 2

6) 송사, 권56, 지제, 106, 여복 5

7) 금사, 권43, 지제, 24, 여복 중

8) 원사, 권77, 지제, 27 하, 제사 6

홍상제로 대개 송제를 따랐다.

고려의 경우 초기에 국왕은 철상건, 자황포, 백관은 복색구별이 있는 공복으로 대신하였다. 현종 13년 이후 한족 조복제인 강사포제의 조복을 요로부터 사여 받은 뒤⁹⁾ 국왕이 원유 3량관, 강사포제의 조복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백관은 예종 8~10년 사이제정(복송, 신종 원풍년간제), 양관, 상의하상제를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은 계속되었던 외침(요, 금)과 내란(이자겸의 난 등)으로 제, 조복을 제대로 갖추어 행례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상)복으로 제, 조복을 대신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착용여부가 의심스러웠으나, 고려 사경화중의 원유관 착용 조복착용예를 볼 수가 있는데, ㉔ 문식이 있는 원령, 대수, 속대, 하상(단주름 장식)¹⁰⁾ ㉕ 문식이 있는 교령, 대수 상의, 단주름 장식된 하상¹¹⁾이다. 이에서 보면, ㉔ 문식이 있는 원령 ㉕ 문식이 있는 교령등의 '문식이 있는 상의'가 고려 특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㉔ 하상에 단주름장식이 된것¹²⁾ 등 역시 고려 특성적이라고 볼 수 있거나, 사경화의 특성상 문식을 화려하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도 1. 3>

㉓ 공(상)복 : 요, 송, 금, 원, 고려가 다같이 공복구성은 복두에 곱령, 대수, 하란장포, 속대, 어대, 화, 혹은 리 착용으로 되었다.

사경화 중에서 볼 수 있는 공(상)복 착용예는,

- ㉔ 전각복두, 원령 소수포, 속대¹³⁾
- ㉕ 전각복두, 원령, 대수장포, 속대한 것으로 복



<도 1> 원유관, 원령대수상의 하상·속대
삼성출판사 박물관소장, 묘법연화경 권제 2, 변상, 삼성출판사 권제 2, 변상, 삼성출판사 박물관도록.

색은 알 수 없으나 대개 문헌기록과 일치한다.¹⁴⁾ <도 3>

- ㉔ 평상복 : 머리는 고계 한후 노계하거나 계부분을 건(巾)으로 덮어 매거나 건모를 착용한 후,
- ㉕ 의복으로 교령의 우임, 무릎길이, 양개차 소수상의에 내하의로 소구고를 착용하고 속대하였다.¹⁵⁾ 이에서 보면, 본연구가 사경화중 주로 평서민의 복식을 주로하여 고찰한 것으로, 고찰결과 고려 평서민 남자는 둔부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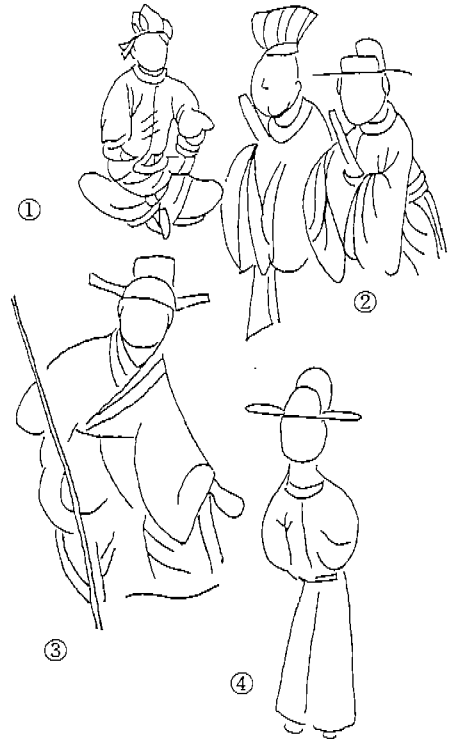
9) 임명미, 고려 왕조대 고려와 교류하였던 제국과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4), 복식 20, 한국복식학회, 1993. 5. p.40
 10) 삼성 출판사 박물관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2변상 : 일본 송강 천륜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3.
 11) 일본 송강 천륜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3
 12)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계빈국 삼장반야역경 변상 : 일본 소빈 우하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31변상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지금니 묘법 연화경 권 7변상
 13) 호림미술관 소장, 감지은니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37변상
 14) 일본 소빈 우하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4 변상인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지금니 묘법 연화경 권 7 변상인물 : 일본 근울미술관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7 변상인물

이, 교령우임, 양개차 상의, 속대, 내하의로 소구(小口)의 하고(下袴)를 착용한 것으로 삼국이래 전통적인 복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⑥ 원령의 착소수 무릎길이 양개차 상의에 속대, 내하의로 소구고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16) <도 2, 3>



<도 2> 원유관, 대수상의, 하상, 결대, 속대, 집홀 착용왕(고관) 및 고계차륜식 두식, 대수상의, 하상, 폐슬, 후수 결대, 속대착용 귀부인, 고계건모, 교령소수 둔부선 길상의 소구고, 속대착용 평서민



<도 3> 전각, 하각 복두, 원령 혹은 교령 장포, 속대, 집홀 공복착용 남자복식

- ① 호암미술관소장,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15 변상도, 고려, 영원한미, 1993, p.127.
② 호암미술관소장,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15 변상도, 고려, 영원한미, 1993, p.127.
③ <도 2-③>과 동
④ 호림미술관소장,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37 변상, 문화재단관 8, p.180.

- 15) 우왕 3년(1377) 제작, 백지묵서, 묘법 연화경 권제 1, 4권
: 충남 천원군 광덕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6 변상인물
: 일본 소빈 우하사 소장(충숙왕 12년 제작 권제 3 변상인물)
: 일본 소빈 우하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4 변상
: 일본 소빈 우하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5 변상
: 일본 송강 천륜사 소장(충숙왕 2년 제작, 권제 3 변상)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지금니, 묘법 연화경 권 7 변상인물
: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4 변상인물
16) 삼성출판사 박물관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2 변상

- ⑤ 승복 :
 - ㉠ 승머리형에 교령의 대수장포, 우견편단의 가사를 착용하였다.
 - ㉡ 승머리형에 교령의 대수상의 하상 연접의 심의형(?) 장포를 착용하고 속대하였다.¹⁷⁾
 - ㉢ 두건을 착용하고 교령의 대수장포에 속대하였다.¹⁸⁾
 - ⑥ 용·무장복 :
 - ㉠ 수미 혹은 조우삼식 투구에 견갑, 피건, 양당갑, 흉갑, 복갑, 위요갑, 군갑, 족갑, 착용하고 병기를 휴대하였다. 갑옷의 가장자리는 팔꿈치 부위, 견갑, 양당갑, 흉갑, 복갑, 위요갑, 군갑, 족갑 등의 가장자리에 각각 단주름

장식을 하였다.¹⁹⁾

- ⑥ 신장(神將)은 정중, 양이하에 계를 만들어 대로 묶고, 이식²⁰⁾, 완부, 양손목, 발목에 장식하고 대개 상의는 노출하고 하의로 문식이 화려한 무릎길이 균의를 요부에 착용하고 속대하였다. 앞중심에 결대하고, 대를 양다리 사이로 하여 뒤로 바람에 휘날리게 하고, 천의를 어깨에 걸치고, 병기를 손에 쥐고 화염에 쌓여있다.²¹⁾
- ⑦ 동자복 : 대개 머리는 정중, 양이하에 1각, 2각, 3각총을 만들어 발대(髮帶)로 묶어 치장하였다. 이식, 경식, 양완부, 팔목, 발목에 장식하고, 상의는 노출하거나 한쪽 어깨만 걸치는 상의에 내



<도 4> 고계한후 건모,교령 둔부선길이 상의, 소구하고 착용 남자 평상복식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 제5변상, (1400~1404), 고려,
영원한미, 1993.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4 변상
 18) 금강산 유철사 소장, 나옹화상수계도중 나옹
 19) 일본 경도 보적사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1 신장상
 : 호림미술관 소장, 대방광원 각수 다라요의경 신장상
 : 법화경 보탑도중 신장상
 20) 국립박물관 소장, 1283제작, 감지금니 묘법 연화경 권제 1 변상 신장
 21)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충숙왕(1324)년 제작),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41 변상도중 신장상
 : 호림박물관 소장, 대방광원 각수 다라요의경 및 6조법 오단경
 : 일본 좌학현 서명사 소장, 소수지갈라 공양법 신장상
 : 일본 문화청 소장, (충숙왕 11년(1276) 제작), 문수사리문 보살경 변상도 신장상
 : 서울 황수영 소장, (충렬왕 원년(1275) 제작), 불공견진색신변진언경, 권제 13, 신장상

하의로 소구고를 착용한후 무릎 아래서 대(帶)로 묶어주고, 요부에 위요, 속대하고 견의와 천의를 걸쳐 바람에 길게 휘날리고 맨발(赤足)이다.²²⁾

2) 여자복식

(1) 발양 및 두식

사경화를 통해선 경서틴 여 복식을 주로 고찰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본 고찰대상 사경화에 부녀자의 경우 경서틴은 등장인물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왕실 귀부인의 복식제도가 사경화에서도 고찰되었다.

머리는 고계하여 쌍계, 단계, 양이하 쌍계하고 발대로 묶어 주었다. 그후 차륜식(車輪式), 부챗살 모양 두식(頭飾)을 하여 치장하거나 보주식을 하였다.

(2) 복 식

① 귀부인²³⁾ 등은 고계후 발대(髮帶)로 묶고, 차륜식 혹은 부챗살 모양의 두식을 하고, 복식으로 교령의 문식이 화려한, 여의습 부착²⁴⁾ 대수상의 표(表)하의로 문식이 화려한 장수군을 착용하는데 하군에는 아랫단에 잔주를 장식이 되어 있다. 앞중심에는 폐술을 한 경우도 있다. 어깨에는 피건을 걸치고 있다. 뒤 요부이하에 결대를 후수하였는데, 신분이 귀한 사람 일수록 결대가 2개인 경우가 있다. <도 5>

㉑ 여시의 경우 양이하 쌍계하고, 교령의 소수장포, 속대. 앞중심에 폐술을 하기도 하였다.²⁵⁾

㉒ 여시의 경우 양 두정에 쌍계하고, 교령의 대수 무릎길이상 내하의로 장수군을 착용하



<도 5> 고계 발대, 고계차륜, 부챗살 두식, 여의습대두교령상의 폐술, 장군, 결대착용 상류층 여자복식 호암미술관소장,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31변상, 고려물화, 도 62.

였다.²⁶⁾

이에서 보면, 왕실 귀족부인의 착용복식은 고려 탕화, 경관화에서 본 왕실귀족 부인의 복식과 대개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를 전후한 당, 오대중국, 송, 금, 일본, 원, 명, 발해, (남국)신라 등의 귀족부인의 복식과 동일하다.²⁷⁾ ㉑ 비천상은 고계후 주보식, 혹은 차륜식 두식을 하고, 요부이하 문식이 있는 하군을 길게 허리에 둘러

22)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방광불 화엄경 행원품
 : 호림미술관 소장,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충숙왕후 3년(1334) 제작)
 : 일본덕천예명회 소장, 진본, 60본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59
 : 호암미술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권제 31, 변상도
 : 국립중앙박물관소장(지정 10년, 충정왕 2년(1350) 제작) 대방광불 화엄경 행원품, 변상도
 23) 주본 80본,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37 변상도, 주본 80본,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31 변상도
 24) '십'은 '여의 수문 간습'이라 하고, '이백'의 시에서는 '해동청'이 날으는 듯한 소매라하여, '해동청습'이라고도 하였다고 함(심종문, 중국 고대복식 연구, 1981. p.273)
 25) 삼성출판사 박물관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2변상
 26) 일본 근을미술관 소장, 묘법 연화경 권제 2변상

여며 착용하고 천의를 걸치고 있다.²⁸⁾

IV. 요 약

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위득 가능한 범위의 총 110여점의 고려시대 사경화를 중심으로 사경화 속에 등장하는 고려시대 복식제도를 특히 평서민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② 본 고찰대상에 포함된 사경화는 대승불교의 2대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중심으로 목종 10년(1006)부터 공양왕 원년까지 384년간, 거의 고려왕조 400년간의 복식에 관한 고찰이다.

③ 남자는 머리는 계를 만들어 노출시키거나, 관·건·모를 착용하고 동자의 경우 1, 2, 3총각을 만들어 대로 묶어 주었다.

④ 사경화에서는 남자 관모로는, 제복용 면류관 착용에는 볼 수 없었고, 원유관, 진현관(양관)류의 관모를 조복용으로 착용하였다. 공(상)복용 복두, 평상복용으로 복건류 관모, 건모, 샷갓류 등을 착용하였고, 용·무복용으로 투구를 착용하였다.

⑤ 복식

㉑ 조복용으로 원유관, 진현관(양관)을 착용하고, ㉒ 원령대수 장포 ㉓ 교령대수 상의 단주름 장식된 하상을 착용하였다.

㉔ 공복용으로 전각복두에 원령대수, 소수장포, 속대, 화를 착용하였다.

㉕ 평상복으로 ㉖ 고계한 후 노계하거나, 계부

분에 건모를 착용하고, 교령우입의 양개차, 소수상의에 내하의로 소구고를 착용하고 속대하였다. ㉗ 원령의 착소수, 무릎길이 양개차 상의에 속대, 내하의로 소구고를 착용하였다.

㉘ 승복은 ㉙ 교령대수장포, 우견편단가사 ㉚ 교령대수 상의에 하상을 연결한 심의형 장포, 속대 ㉛ 복건식 두식, 교령대수장포, 속대하였다.

㉜ 용, 무장복, 투구, 건갑, 피건, 양당갑, 흉갑, 복갑, 위요갑, 군갑, 측갑을 착용하고 병기를 휴대하였다.

㉝ 동자는 1, 2, 3 각 총각머리를 하고, 발대로 묶었다. 상의노출, 소구고(무릎아래 묶어줌), 위요, 속대하고 견의와 천의를 하였다.

⑥ 여자복식중

㉞ 귀부인은 고계하여 쌍계, 단계, 양이하 쌍계하고 발대로 묶어 준 후, 차륜식, 부챗살 모양 두식하고, 보주식하였다. 외복은 교령의 문식이 화려한 여의습 부착 소매, 대수상의에 문식이 화려한 장습군, 폐술, 피건을 걸치고 결대하였다.

㉟ 여시종의 경우 양이하 쌍계, 교령의 소수장포, 속대, 폐술하였다.

㊱ 양두정에 쌍계, 교령의 대수, 무릎길이 상의, 내하의로 장습군 착용하였다. 이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로 이어진 민족의

27) 가등승구, 서역의 미술 3, 동경, 강담사
 : 문화연구원, 안서 유림굴, 평범사, 1993.
 : 문화출판사, 돈황 막고굴, I, II, III, IV, V 문화출판사
 : 산서성 고건축 보존연구소편, 암산사 금대벽화
 : 소승무미, 화엄연기, 일본 회전대성 17, 1990.
 : 중국 국제서적무역협회, 영락궁 벽화, 1985.
 : 양자명의 1인, 직익묘 벽화, 인민미술출판사, 1982.
 : 김문지, 발해의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 정재훈, 문화재대관, 서울, 1986.
 : 김원용 외편, 고려불화, 한국의 미 7, 중앙일보사, 1989.
 : 삼성문화재단, 고려, 영원한 미, 1993

28) 일본 보적사 소장(충렬왕 20년(1294)제작), 도법 연화경 권제 1변상, 비천상
 : 호림박물관 소장, 공민왕 6년(1357), 대방광원 각수다라 요의경 변상도 중 비천상
 : 일본 경도 교왕 호국사 소장, 고종 36(1249)년 제작, 법화경 보탑 변상비천상

전통적인 복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 ㉔ 소녀는 피발, 교령의 착소수 장포, 속대, 소구의 하고를 내하의로 착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1. 탕화

가) 단행본 및 도록

- 1) 권희경, 고려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 2) 경인문화사, 요사,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3) 경인문화사, 송사,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4) 경인문화사, 원사,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5) 김원룡 외 편, 고려불화, 한국의 미 7, 중앙일보사, 1989. 5
- 6) 김영주, 조선시대 불화연구, 지식사업사, 1986
- 7)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소, 역주 고려사, 1982
- 8) 문명대, 한국의 불화, 열화당, 1981.
- 9) 민족문화추진 위원회, 고전 국역 총서, 고려도경, 1978.
- 10) 민족문화추진 위원회, 고전 국역 총서, 고려도경, 1978.
- 11) 삼성출판사, 고려, 영원한 미, 1993. 삼성문화재단.
- 12) 안광석, 화업연기, 의상회의 주변, 1990.
- 13) 이동주, 한국회화사론, 열화당, 1987.
- 14) 이동주 감수, 고려불화, 중앙일보사, 1981.
- 15) 임명미, 몽고복식, 경춘사, 1992.
- 16) 최순우, 고려, 조선-한국의 미술 1-, 서울, 도산문화사, 1981.
- 17) 한정섭 외 1인, 불교 신장 연구, 이화문화 출판사, 1992.
- 18) 홍윤식, 한국의 불화, 1984.
- 19) 홍윤식, 고려불화의 연구, 동화출판사, 1984.

나) 논문

- 1) 권영필, 한국 불화에 나타난 산수요소의 원류

- 와 그 발달(上), 미술자료 35, 1984.
- 2) 권영필, 한국 불화에 나타난 산수요소의 원류와 그 발달(下), 미술자료
- 3) 권희경, 고려의 지장보살화, 동양문화연구 5, 경북대학교 중앙문화 연구소, 1978.
- 4) 권희경, 고려사경의 발원문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73, 한국미술 사학회, 1987.
- 5) 김정희, 고려말 조선전기 지장보살화의 고찰, 고고미술, 157. 한국미술사학회, 1983.
- 6) 김종대, 고려 오백나한상고, 공간, 205, 1984.
- 7) 김동현, 부석사, 무량사전과 조사당, 불교미술 3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7.
- 8) 문명대, 고려 관경변상도의 연구,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1.
- 9) 문명대,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시론, 불교미술 3,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7.
- 10) 문명대, 고려 불화의 조정 배경과 내용, 고려 불화, 중앙일보사, 1981.
- 11) 문명대, 노영필 아미타 구존도 이면 불화의 재검토, 고문화 18, 한국대학 박물관 협회, 1980.
- 12) 문명대, 고려 관경변상의 연구, 불교미술 6,
- 13) 문명대, 고려불화의 양식변천에 대한 고찰, 고고미술, 184, 1989.
- 14) 문광희, 고려 불화속에 나타난 판도 및 계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5) 박도화, 한국 불교벽화의 연구,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1
- 16) 안취준, 고려시대 인물화, 고고미술, 180, 1988.
- 17) 안취준, 고려불화의 회화사적 의의, 고려 영원한 미, 삼성미술문화재단, 1993.
- 18) 유마리, 고려 아미타 불화의 연구,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1.
- 19) 유마리, 고려시대 오백 나한도의 연구, 한국불교 미술사론, 민족사, 1987.
- 20) 이동주, 고려불화중의 인물 화조도, 계간미술, 18, 1981.

- 22) 이동주, 고려불화중의 -탱화를 중심으로-, 고려불화, 중앙일보사.
 - 23) 임영미, 고려왕조대 고려와 교류하였던 제국과 고려의 복식제도에 관한 연구.(2~4), 복식 20, 한국복식학회, 1993. 5
 - 24) 임명자, 고려 불화중의 -탱화에 나타나는 의상문양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25) 임명자, 고려불화중의 -탱화에 나타나는 의상문양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26) 임진, 수덕사 대웅전의 벽화, 미술자료 2, 1960.
 - 27) 정우택, 고려불화에 있어서 사상의 전승, 미술사학 연구, 192, 한국미술사학회, 1991.
 - 28) 장경희, 14C, 고려염직 연구, 미술사학 연구, 190, 191, 1991.
 - 29) 조효숙, 고려시대, 견식물의 실증적 연구, 복식 20, 한국복식 학회지, 1993. 5
 - 30) 홍윤식, 고려 불화의 구도상의 특성-조선 불화와와의 비교를 통하여-,
 - 31) 홍윤식, 한국 불화와 일본 문화, 불교학보 18,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소, 1981.
 - 32) 홍윤식, 조선초 지은원 소장 오백 나한도와 그 산수화적 요소, 고고미술, 169, 170, 1986.
 - 33) 홍윤식, 고려불화의 주제와 그 역사적 의미, 고고미술 180, 1988.
 - 34) 홍윤식, 불화와 한국문화, 고려, 영원한 미, 삼성미술문화재단, 1993.
 - 35) 홍윤식, 고려 불화의 특징과 그 이래를 위하여, 삼성미술문화재단, 1993.
 - 36) 홍윤식, 불상, 불화의 복장물의 미, 문화재 19, 문화재 관리국, 1986.
- <국외서적>
- 가) 중국
- 단행본 및 도록집
 - 1) 돈황문물연구소, 돈황막고굴 예술, 삼련서점 향향분집, 1981.
 - 2) 문물출판사, 돈황막고굴 I, II, III, IV, V, 문물출판사.
 - 3) 문물출판사, 판서유림굴, 북경 문물출판사, 1983.
 - 4) 산서성 고 건축 보존 연구소편, 암산사 금대벽화, 북경, 문물출판사, 1983.
 - 5) 산서성 고 건축 보존 연구소편, 불광사 화대전 원 당 오대벽화, 북경, 문물출판사, 1983.
 - 6) 산서성 고 건축 보존 연구소편, 개화사 송대벽화, 문물출판사, 1983.
 - 7) 양자명의 1인, 직익묘 벽화, 인민미술출판사, 1982.
 - 8) 양춘양의 1인, 신강의 벽화 상, 중국외문 출판사, 1981.
안춘양의 1인, 신강의 벽화 下, 중국외문 출판사, 1981
 - 9) 양학조, 돈황벽화 일본선집, 상해인민 미술출판사, 1989.
 - 10) 주석보, 중국고대복식연구, 북경, 중국 회극출판사, 1984.
 - 11) China International Book Trading Co. The Yongle Palace Murals, Baijing, 1985.
- 나) 일본
- 단행본 및 도록집
 - 1) 가등승구, 서역의 미술, 권 1, 2, 3, 동경, 강담사, 소화 59.
 - 2) 문물출판사, 키질석굴 1, 평범사, 1983.
 - 3) 문물출판사, 키질석굴 2, 평범사, 1983.
 - 4) 문물출판사, 키질석굴 3, 평범사, 1983.
 - 5) 문물출판사, 맥적산 석굴, 평범사, 1988.
 - 6) 돈황연구원, 안서유림굴, 평범사, 1990.
 - 7) 소송무미, 화엄종조사 회전, 화엄연기, 일본회전대성 17, 1990
 - 8) 용문물 보관소, 용문석굴, 제1권 평범사, 1987.
 - 9) 용문물 보관소, 용문석굴, 제2권 평범사, 1987
 - 10) 동경미술학교, 범룡사 대경 권 4, 8, 9 대총공

예사, 소화 9년

- 11) 조일신문사, 고려불화, 조일신문사, 1981.
- 12) 신강위구르자치구 문물관리 위원회 문물 출판사, 중국석굴, 평범사, 1987.
- 13) 수양청일, 운강석불군. 조일신문사, 소화 19년.
- 14) 하남성 문물 연구소편, 중국석굴, 평범사, 1987.

• 논 문

- 1) 석상선용, 고려 불화와 일본 불화의 비교 연구, 고려 영원한 미, 삼성 미술 문화재단, 1993.
- 2) 이동유진, 고려 문화재의 일본전대, 고려 영원한 미, 삼성미술문화재단, 1993.
- 3) 하원유용, 일본에 있는 고려불화의 위치, 고려 영원한 미, 삼성미술문화재단, 1993.

사경 및 경판화

• 단행본 및 도록

- 1) 권희경, 고려사경의 연구, 미진사, 1986.
- 2) 김원용외, 문화재 대관 8,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6.
- 3)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장엄, 국립중앙박물관, 1991.
- 4) 동국대학교 박물관, 개교 77주년소장품 100선,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3.
- 5)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박물관 개관기념도록,
- 6) 연세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전시품 도록(I), 연세대학교 박물관,
- 7) 장충식, 고려화엄경 판화의 세계, 아세아 문화사, 1992.
- 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 보고서, 84~85 지정편, 문화공보부, 1989.

- 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 보고서, 88지정편, 문화공보부, 1989.
- 10) 청주고인쇄 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1993.
- 11) 해인사, 불설예수 10왕생 7경, 고려고종 33(1246)

• 논 문

- 1) 문명대, 묘법연화경 사경 변상도의 한 고찰, 한국불교학, 3, 1977.
- 2) 박도화, 고려 금은니 사경화의 양식고찰, 고고미술 18, 1989.
- 3) 박도화, 고려후기 사경 변상도의 양식 변천, 고려, 양원한 미, 삼성미술문화재단, 1993.
- 4) 이성미, 고려 초조 대장경의 어제비장전 판화, -고려초기 산수화의 연구-, 고고미술, 169, 170, 1986
- 5) 장충식, 법화 변상고, 한국불교학 3, 1977
- 6) 장충식, 한국불교판화의 연구, 불교학보 19, 1982.
- 7) 장충식, 한국사경목록, 불교미술 7, 동국대학교 박물관
- 8) 천혜용, 고려시대전적, 고고미술 184, 한국미술사학회, 1989.
- 9) 천혜봉, 한국의 고대판화, 초조어제비 장전의 목판화, 계간미술, 1977, 여름
- 10) 황수영, 고려사경의 연구, 고고미술 157, 한국미술 사학회, 1983.
- 11) 황영주, 고려 감지금니 사경의 신예, 고고미술 16, 1961.
- 12) 황영주, 고려국왕 발원의 금은니사경, 고고미술 125, 1975.
- 13) 황영주, 안성청원사의 고려사경 -고려 국왕 발원은니사경-, 동양학 5,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The Koryo Dynasty(2)

—See through by human being, on
the writtended Budist scripture(2)—2.

It was aimed to study the costume of Koryo dynasty based upon the one hundred and ten pictures of the writtended Budist scripture. The costume to study were made about 400 years during the King Mok-jong(1006) to the first year of the king Kong-yang based upon the Avatamaka Sutra and the Sutra of the Lotus.

가) Men's wear :

1. Hair style and hair dress :

1) Man bored a hair and put on the hat such as a Kuan, Kun, and Mo. The young boys binds his hair up one, two, and three knots, and tied up with a hair ribbon. A kinds of hats were T'ung-t'ien-kuan(Yuan-yu-kuan) and Chin-hien-kuan(Yang-kuan) as a court dress. The man wore pok-du as an official uniform and wore a pok-du, kun-mo as an everyday

dress and wore a helmet as a soldier's uniform.

2. Clothes :

1) They wore Yuan-yu-kuan and Chin-hien-kuan as a court dress, and wore belt, boots, pleated decorated long skirt also. They wore round shape collar big sleeve jacket, small sleeve long coat, belt, boots as an official dress.

2) The soldiers wore helmet, scarf, yang-dang-kap, hung-kap, bak-kap, we-yo-kap, kun-kap and jok-kap and carries arms.

3) The young boys bind his hair up one, two, and three angle shape and tied up a hair ribbons.

나) Women's wear :

1. Hair style and hair dress :

High rank ladies made their hair top knot (one, two, or more knots) and tied with hair ribbons, and decorated with precious stone, pan shape head dress, wheel shape head dress.

2. Clothes :

1) High rank ladie's wore kun-kyun attached jacket, and jacket sleeves decorated pleats, and pleats decorated long skirt, apron, back apron, knot belt, scarf.